

COLUMN

데이터베이스 (Data Base) 활용과 목적



IIII 김인석
(주)화인코리아 상무

오리산업은 1990년도부터(71만6천수, 사육수)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성장을 해왔으며, 특히 최근 5~6년 사이 급성장을 하였다.

따라서 육용오리 사육규모도 천여수 규모에서 대다수 농가가 10,000~20,000수로 커졌으며, 종오리장 규모나 시설부분 역시 흐름에 맞춰 대형화, 현대화 추세에 이르고 판매시장도 소규모 재래시장에서 이제는 마트, 대형 할인매장과 전문 대리점 등으로 자리를 잡았다.

제품의 유형도 일반오리 외 유황오리와 기능성오리 그리고 가공육들로 조리가 편리한 다양한 제품들이 웰빙을 추구하는 시기에 상호적 관계로 맞물려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으로 예상돼 오리 산업은 상당히 희망적인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전제아래 우리 종사자들은 무엇을 더 준비하고 오리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과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중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기본 관리(基本管理)이다. 이것은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System이다.

⊗ Data Base의 중요성

데이터베이스(Data Base)는 타 축종에서 활용되는 단지 통계자료에 그쳐서는 안되며 그동안 오리산업 발전에 힘입어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생산성에 관계 없이 모두가 기업 및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었으나, 이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절대 필수요건으로 모두가 인식하여야 한다.

첫째로 데이터 기록관리로 생산성을 높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① 종오리의 육성율, 폐사율, 산란율, 수정율 등 기록 관리 방법으로 운영함으로써 문제점을 찾아 해결한다.
- ② 부화율 및 초생추 품질에 대한 데이터관리 개선의 노력으로 생산측면에서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오리를 생산한다.
- ③ 계절적 사양관리 및 부화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노하우를 갖는다.
- ④ 기록은 종오리 군별, 축사별, 부화기별, 이력제 활용으로 문제점 해결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로 생산량을 예측 사업계획을 세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① 일간, 주간, 월간, 연간 생산량을 예측하여 계획에 따른 운영으로 경영소득을 향상시킨다.
- ② 수요기, 비수요기 생산량 예측으로 물량조절 기능이 된다.
- ③ 종오리 도태 및 후보 종압 입식시기를 가능할 수 있으며 입식수량도 예측, 정확한 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
- ④ 축사 활용 계획을 세워 수요기 가동율을 높일 수 있고 휴지기간을 두어 질병차단의 효과도 얻는다.

셋째로 문제점이 있을시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받는다.

- ① 정확한 기록관리가 있어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 ② 사실 그대로 상황 설명이나 보충자료가 있어야 개선의 효과가 크다.
- ③ 빠른 전달과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 ④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넷째로 통계자료는 오리업계 경기흐름을 감지하여 전.후 사업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다.

- ① 주간, 월간 단위로 종오리사육수, 육용오리 생산수, 사육수 출하율 등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물량조절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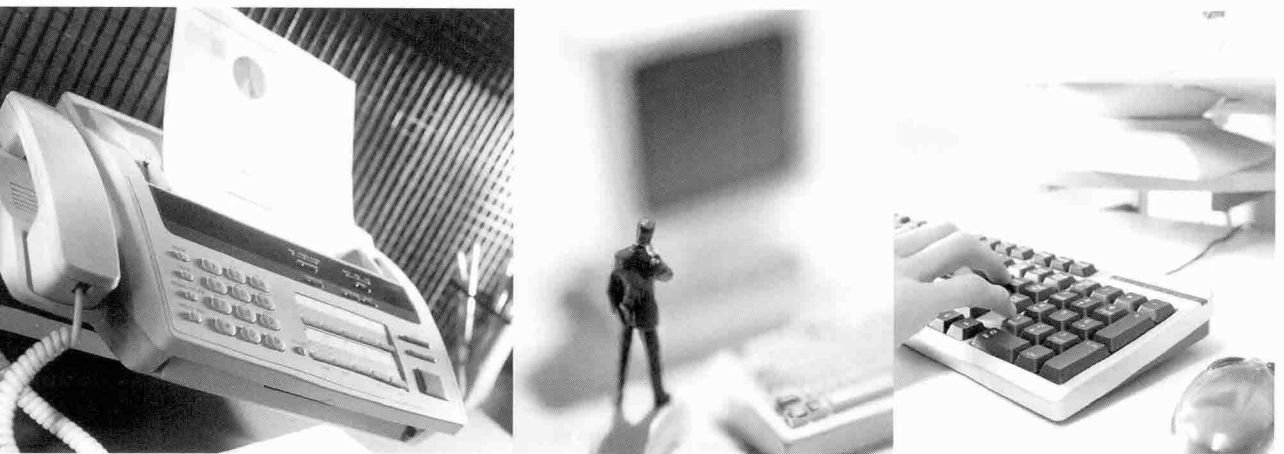
- ② 생산물량에 대한 과.부족 상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모두가 어려움 겪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
- ③ 종사자 모두가 통계상황을 공유하므로 사업방향에 일치감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다섯째로 종합한 통계자료는 국내 전체물량 수급조절에 기초자료가 되며 대안 마련에 중요자료다.

※ 협회의 역할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없으면 용두사미로 전략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봐 왔다. 그 바탕에는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수반된다. 어느 일이든 쉬운 것이 없고 여건이 좋을 리 없다. 사장이 입장에서 인내심을 갖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챙겨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① 사장이(농장, 부화장)의 D/B 필요성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
- ② 현실에 맞는 간편하고 편리한 D/B system을 만들어야 한다.
- ③ 정확한 기초자료 수집이 되어야 한다.
- ④ 지속적인 기술과 정보교환이 이뤄져야 한다.
- ⑤ 신뢰성과 성의가 있어야 한다.
- ⑥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안 되어야 한다.(통계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통계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 ⑦ 수요와 공급의 불안 요인을 파악하여 수급과 가격 안정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 ⑧ 정부에 정책건의, 정책방향 등 이제 통계자료를 토대로 근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찾을 권리나 혜택을 받고 회원 모두가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 ⑨ 현재 진행중인 GPS 사업과 연계하여 시기별 P.S 생산과 도매 등 조절기능을 가져야 한다
- ⑩ PS종오리 도태지연과 제도권 밖에 있는 F1종오리 농가와 무등록 부화장 등 현안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 ⑪ 통계자료가 악용되지 않도록 보안 System을 만들고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 사육가의 의식변화가 필요

사육규모나 시설의 낙후성 문제로 세분화된 기록 관리를 불편해하는 고정관념이 팽배해 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이나 세원노출에 염려하고 주변사람과 연대하여 부정적 이유를 만들어 분위기를 형성한 부분도 있다.

- ① 귀찮다.
- ②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 ③ 컴퓨터를 못해서 못한다.(관리일지만 기록하면 된다. ● FAX나 유선으로 통보가능)
- ④ 이해관계나 소외된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비협조적이거나 소극적이다.
- ⑤ 남을 위한 기록관리 방법이 아니라 내 현장에서 관리자부터 변화가 있어야 하며, 기록에 대한 분석이 함께 논의되어야 성과변화에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 정부 지원 대책

이제 우리는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오리 산업의 성장과 역할로 축산물 중에서 그 위치는 5위권에(양돈, 한육우, 산란계, 육계, 오리) 있으며, 생산액 변화에서 그간 15년 사이 약 20배 초

고속 성장한 산업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도출시키고 축산물 생산비 등 각종 통계에서 제외돼 각종 혜택에서 불이익 받고 있는 현주소는 모두가 반성할 부분이다.

- ①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각종 자금과 예산혜택을 타 우수 축종과 같이 비례하여 받아야 한다.
- ② 각종 보상기준 데이터를 상정하여 현실에 맞는 보상과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한다.
- ③ 수입오리고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즉 검역 또는 저품질 오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반대로 수출에 대한 지원이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④ 기타 : 오리관련 연구소 및 학계에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전문인재 개발에도 전념, 생산량을 기초로 하여 경영소득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이다.

